한 문 정답

1	①	2	④	3	③	4	②	5	②
6	③	7	⑤	8	④	9	①	10	⑤
11	②	12	⑤	13	③	14	④	15	①
16	④	17	①	18	②	19	⑤	20	①
21	④	22	④	23	③	24	②	25	③
26	⑤	27	⑤	28	②	29	①	30	②

해 설

1. [출제의도] 한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회의 ③ 상형 ④ 지사 ⑤ 회의

2. [출제의도] 생활 한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비[雨] ☼-맑음[晴] ☁-구름[雲] ↯-번개[電]

3. [출제의도] 한자를 활용하여 한자어를 만들 수 있다.
問題, 質問, 問答, 疑問

4. [출제의도] 한자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낙엽'은 가을[秋]이 연상됨.

5. [출제의도] 생활 한자어를 바르게 독음할 수 있다.
독감주의

6. [출제의도] 한자어의 짜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술목> ② <술보> ④ <유사> ⑤ <수식>

7. [출제의도] 한자어의 문맥적 의미를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⑤ 제 마음대로 하다.

8. [출제의도] 생활 용어를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① 비상구 ② 도서관 ③ 휴게소 ⑤ 대피소

9. [출제의도] 성어의 우리말 뜻을 알 수 있다.
① 함흥차사 ② 각자도생 ③ 명경지수
④ 동고동락 ⑤ 백년가약
[오답풀이] ② 塞翁之馬 ③ 明若觀火 ④ 同床異夢 ⑤ 百年河淸

10. [출제의도] 어구에 맞는 성어를 알 수 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여 응함.
⑤ 유유상종 : 같은 무리끼리 서로 오가며 사귐.

11. [출제의도] 성어의 속뜻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설왕설래 : 무슨 일의 시비를 따지느라고 말로 옥신각신함.

12. [출제의도] 글의 뜻에 맞는 성어를 알 수 있다.
⑤ 겸손함은 이익을 부르고, 교만함은 손해를 부른다.
[오답풀이] ③ 외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부모님을 뵙는다.

[13~14]
푸른색은 쪽에서 취했으나 쪽빛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어졌으나 물보다 더 차다.
출전 : 『순자(荀子)』

13. [출제의도] 글의 뜻에 맞는 속담을 알 수 있다.
③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

14. [출제의도] 한자의 문맥적 의미를 알 수 있다.
④ 서리에 물든 단풍잎이 봄꽃보다 붉다.

15. [출제의도] 속담의 속뜻을 알 수 있다.
㉮ 부지런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다.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 공든 탑이 무너지랴.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내 배 부르면 종놈 배고픈 줄 모른다.

16. [출제의도] 문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여진과 조선의 경계에 있으며, 온 나라의 지붕이 된다. 위에 큰 못이 있으니 둘레가 팔십리이다.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이 되고, 북쪽으로 흘러 혼돈강이 되니, 두만강과 압록강의 안쪽이 바로 우리 나라이다.
출전 : 『택리지(擇里志)』
백두산의 지형적인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 글임.

[17~18]
하진은 일명 용문이라고도 하니, 물길이 험하여 배가 다니지 못하고 물고기나 자라 따위도 오를 수 없다. 강과 바다의 큰 물고기들이 용문 아래에 수천 마리가 모여드나 오를 수 없는데 오르기만 하면, 용이 되었다. 출전 : 『후한서(後漢書)』

17. [출제의도] 고사의 속뜻을 알 수 있다.
등용문이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뜻으로 입신출세의 관문을 뜻함.

18. [출제의도] 한자의 문맥적 의미를 알 수 있다.
② 상경 : 서울에 올라가다.

[19~20]
맹자가 말했다. "인은 사람의 양심이고, 의는 사람이 가야할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가지 않으며, 양심을 잃고서도 찾을 줄 모르니 슬프구나. 사람이 닭과 개를 잃으면 찾을 줄 알면서도 양심을 잃으면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으니 그 잃어버린 양심을 찾는 것일 따름이다.
출전 : 『맹자(孟子)』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맹자는 일상의 욕구로 인해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의 선한 본성 곧, 양심의 회복을 학문의 급선무로 여겼다.

20. [출제의도] 허자의 쓰임을 알 수 있다.
而已矣 : ~일 따름이다<한정 종결어기사>

21. [출제의도] 글을 조건에 맞게 한역할 수 있다.
대우(對偶)로 이루어진 시구임에 착안.

22. [출제의도] 한시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강물이 파라니 새는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은 불타는 듯 하구나.
올 봄도 휙 지나가니,
집에 돌아갈 날은 언제인가.
출전 : 두보(杜甫)의 「絶句」
강과 산의 아름다운 봄 경치를 보며, 속절없이 또 새 봄을 타향에서 보내야 하는 나그네의 시름을 노래하였다.

[23~24]
임께서 달이 뜨면 오신다더니,
달이 떠도 임은 오시지 않네.
아마도 우리 님이 계신 곳은
산이 높아 달이 늦게 뜨겠지.
출전 : 능운(凌雲)의「閨怨(규원)」

23. [출제의도] 시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재회(再會)를 약속하고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함. 임을 그리는 애틋함과 이루지 못하는 재회의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 있다.

24. [출제의도] 시어의 문맥적 의미를 알 수 있다.
云 : 문장에서는 주로 인용할 때 쓰임.

[25~26]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엽게 여겨 새로 스물 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출전 :「훈민정음어제(訓民正音御製)」

25. [출제의도] 한자의 문맥적 의미를 알 수 있다.
'어린(어리다)'는 '어리석다'의 옛말임.

26. [출제의도] 문장을 어순에 맞게 풀이할 수 있다.
4 3 2 1
有 所 欲 言 : 말[言]하고자[欲] 하는 바[所]가 있다[有].

[27~28]
영의정이 여름날 낮잠을 자는데, 뱀이 공의 배위로 올라갔다. 공이 마음속으로 뱀을 쫓고자 하였으나, 뱀이 놀라 사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목석처럼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아들 섬이 막 여섯 살인데, 마침 공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곧 풀이 우거진 못에 가서 서너 마리의 개구리를 잡아와 던지니, 뱀이 사람을 버리고 개구리를 쫓아갔다. 공이 이에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출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27. [출제의도] 문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홍섬(洪暹)이 어렸을 때 기지로 위기에 처한 아버지[홍언필(洪彦弼)]를 구했다는 일화이다.

28. [출제의도] 지시어의 의미를 알 수 있다.
'之'는 지시대명사로 여기서는 '뱀'을 가리킨다.

[29~30]
김선생은 우스갯소리를 잘했다. 일찍이 친구 집을 방문하였더니, 주인이 술상을 차렸는데, 단지 채소 안주뿐이었다. 먼저 사과하며 말하였다. "집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 맛있는 음식이 전혀 없고 오직 담박하니, 이렇게 부끄러울 뿐이네." 마침 여러 마리 닭이 뜰에서 어지러이 쪼고 있거늘, 김선생이 말하였다. "대장부는 천 금을 아끼지 않으니, 즉석에서 내 말을 잡아 술안주로 삼으리라." 주인이 말하였다. "말을 잡으면 무엇을 타고 돌아갈 텐가?" 김선생이 말하였다.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가지." 주인이 크게 웃고 닭을 잡아 그를 대접하였다.
출전 :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29. [출제의도] 문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손님을 인색하게 대접하는 것을 우스운 이야기로 꼬집은 소화(笑話)이다.

30. [출제의도] 문장의 형식을 알 수 있다.
의문형 :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형식
반어형 : 의미를 강조한 반문의 형식